한국경호경비학회 – 제33호(2012): 7–25

투고일 2012. 10. 12, 심사일 2012. 11. 12, 게재확정일 2012. 12. 06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와 효율적 대처방안

강 욱 · 전용태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와 효율적 대처방안

강 욱* · 전용태**

〈요 약〉

자살폭탄 테러는 일반인이 실행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 또한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자살폭탄 테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살폭탄 테러로 2011년에 2,670명이 목숨을 잃었다. Ropoport는 이것이 현대 테러리즘에서 제4의 물결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를 여러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의 상실, 정신적인 충격,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나 이념, 조직의 전략 등이 자살폭탄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제어 : 자살폭탄 테러, 제4물결, 동기, 자살폭탄 전략, 대응방안

* 서울 송파경찰서,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조교수(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강사(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제4물결과 자살폭탄 테러
Ⅲ.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
Ⅳ. 자살폭탄 테러의 전략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Ⅰ. 서 론

우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9·11 테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FBI의 테러리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전 세계에서 260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279건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 세계적으로 10,283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2,533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살폭탄 테러가 전체 테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만 자살폭탄 테러로 2,670명이 사망하였다. 1건의 테러에 약 1.2명이 사망하였으나, 자살폭탄 테러의 경우 1건당 10.3명이 사망하였다. 일반 테러사건 보다 8.6배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다. 테러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폭탄 테러가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자살폭탄 테러는 테러리스트가 목표에 직접 접근하여 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성공확률이 높고, 치사율도 높다. 자살폭탄 테러자는 어떠한 유도탄보다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가 좋은 시점과 지점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교한 최신에 유도탄을 개발 할 수 없는 테러조직에게는 자살폭탄 테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스리랑카의 테러 조직인 Tamil Tigers(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는 자살폭탄 테러를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160건 이상의 자살

w폭탄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1991년에는 인도의 총리인 라지프 간디(Rajiv Gandhi), 1993년에는 스리랑카의 대통령인 라나싱 프레마다사(Ranasinghe Premadasa)를 자살 폭탄 테러로 살해하였다. 터키의 테러 조직인 Kurdistan Workers' Party(PKK), 레바논의 테러 조직인 Hezbollah, 그리고 al-Qaeda 등이 자살 폭탄 테러를 주요 테러 수단으로 삼고 있다.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에 의한 카미카제가 자살을 수단으로 한 최초의 공격이기는 하나, 이는 군사작전에 의한 것이고, 테러 조직에 의한 최초의 자살폭탄 테러는 Hezbollah에 의한 1983년의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가 2000 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밴을 대사관이 있는 7층 건물로 돌진, 폭발함으로써 63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미국인은 17명 이었다. 자살폭탄 테러의 성공으로 Hezbollah는 자신들의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에 자극받아 Tamil Tigers는 1987년,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인 Hamas는 1994년, PKK는 1996년, 알카에다는 1998년에 각각 자살 폭탄 테러를 자신들의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Ⅱ. 제4물결과 자살폭탄 테러

테러리즘의 저명한 학자인 Rapoport(2004)는 현대 테러리즘의 4가지 물결(four waves of modern terrorism)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물결은 통신과 이동수단의 발달로 188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는 소위 무정부주의자 물결(anarchist wave)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주로 왕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부유층을 암살하였다.[1] 결국 미국 대통령 Theodore Roosevelt는 이러한 암살은 테러이며,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강화하고 조약을 맺어 이를 근절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협력이었으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실패로 귀결 되었다. 두 번째 물결은 세계 1차 대전 직후인 192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라고 불렀으며[2], 정치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였다. 식민지

1) 이때를 암살의 전성시대(Golden Age of Assassination)라고도 한다.
2) 테러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정부의 테러(government terror)에 맞서는 자유의 전사라고 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후의 테러리스트들도 이를 따랐다.

를 경험한 많은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종국에는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으며,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두 번째 물결에서는 저명인사보다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경찰이 정부의 눈과 입이며, 정부를 대표하는 거리의 상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hit and run)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였다. 세 번째는 신좌파 물결(new-left wave)로 1960년대에 등장하였다. 베트남 전쟁 등 여러 국제적인 물리적 충돌은 제3세계나 서방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현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공산주의 진영은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터키 등지에서 급진주의자들이 출몰하였으며,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베트콩(Viet Cong)은 그들에게 우상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새로운 모범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납치가 테러리스트의 주된 전략이었는데, 1968년부터 1982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73개국에서 409건(951명)의 납치가 발생하여 3억 5천만 달러가 몸값으로 지불되었다. 또한 두 번째 물결에서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암살이 자주 발생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물결에서는 암살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고위직이기 때문이었으나, 두 번째 물결에서는 고위직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 그 대상이 되었다. 즉, 암살은 징벌적(punishment)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요르단의 총리와 왕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자신의 나라밖으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암살을 당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에 시작된 종교적 물결(religious wave)이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물결의 큰 특징은 종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테면 스리랑카의 불교신자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종교적 물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에 따르는 이슬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거룩한 순교(martyrdom)이며, 이는 이슬람교도에게 최고의 영광이다.[3] 이슬람교가 네 번째 물결의 핵심이기는 하나 기독교 테러리즘(Christian terrorism) 또한 주요한 요소이다. 기독교 테러리즘은

3) 일부 서방국가에서 이슬람교도들은 순교를 할 경우 사후 세계에서 72명의 처녀들과 호의호식하며 지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순교에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종차별주의와 결합하여 순수한 백인 기독교도만을 위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종교적 물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살폭탄 테러(suicide bomb terrorism)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는 911 테러가 자살 폭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네 번째 물결이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 러시아, 스리랑카에서는 테러 조직의 주요 수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자들(suicide bombers)의 동기(motivation)와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테러조직이 어떻게 자살폭탄 테러자들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는 지도 소개하고자 한다.

Ⅲ.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Motivation)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테러 조직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데, 왜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테러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을 검거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동기와 목적을 조사할 수 있으나, 자살 폭탄테러의 경우 실행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동기를 밝히기가 어렵다.

최근 여러 학자들이 왜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살 폭탄 테러는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bizarre phenomenon)이다. 자살폭탄 테러자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동시에 자신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innocent) 시민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본성(basic human instinct)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Crenshaw(2007)는 자살폭탄 테러가 단순한 자살과 살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교자(martyr)로서의 지위, 대중의 승인, 정치적인 성공 등이 자살폭탄 테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국가나 조직은 그들을 영웅이나 순교자로 기억하며, 이러한 기억은 국가나 조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자살폭탄 테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 것 없고 실망스럽기까지 한 자신의 인생이 자살폭탄 테러라는 행동으로 일약 영웅이나 순교자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Post, Sprinak, & Denny, 2003).

일반적으로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는 개인적인 이유와 조직이나 국가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Ricolfi(2005)는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는 이유는 개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분노, 복수, 좌절, 의무감 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반면, Bloom(2005)은 리더에 대한 헌신, 조직의 압력, 자살폭탄 테러를 순교로 여기는 분위기, 도덕적 강요, 자살폭탄 테러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조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부추긴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의 동기를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 국가적인 차원으로 분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적인 차원

1) 가족이나 연인의 상실

자살폭탄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잃었을 경우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Spekhard와 Akhmedova(2005)는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한 34명의 체첸인을 그 가족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자살폭탄 테러자에게 일어났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인 16명이 적어도 한명 이상의 가족이 러시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5명은 부모가, 8명은 형제가 사망하였으며, 3명은 가족들이 체포당한 후 행방불명 되었다고 한다. 결국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한 34명 전원이 자신의 가족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연인의 상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자살폭탄 테러자는 가족이나 연인의 상실로 트라우마(trauma)를 겪게 되고 이는 자살폭탄 테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가족이나 연인을 죽음으로 내몬 그룹이나 조직에 대한 복수만 남게 되는 것이다. 체첸의 블랙위도우는 대표적인 자살폭탄 테러 그룹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남편 또는 자녀들이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사망하였고, 이들의 목표는 러시아에 대한 복수이다. 2011년 1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항에서 체첸 블랙위도우의 소행으로 보이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최소 3명의 용의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중 1명이 TNT 7kg에 상당하는 폭발물을 가지고 직접 공항으로 들어가 폭발시킨 것이다.

2) 상대적인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인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 자살폭탄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 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Walker and Smith, 2001). 예를 들면, 911 테러를 실질적으로 기획한 Muhammad Atta와 그의 동료들은 빈곤하지도 않았으며, 교육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회나 조직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으며, 이는 자살테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2005년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가 있다. 영국 국적인 이슬람 청년들은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지만 이슬람이라는 편견과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차별을 겪는 것을 보면서 영국인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버스, 지하철역에서 테러를 감행하였다. 이들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 스스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현재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은 소외감(alien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막상 죽음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Mikulincer et al., 2002). 따라서 테러 조직들도 이러한 소외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하며,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3) 순교(martyrdom)

이슬람교도들은 순교(martyrdom)는 죽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후세계로 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는다. 비록 남자들이 순교를 할 경우 72명의 아름다운 처녀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순교 후 사후세계가 있으며, 그러한 사후세계는 현재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여성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적용된다. Berko와 Erez(2006)는 16세부터 26세까지의 테러를 저지른 13명의 여성 이슬람 죄수들을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검거되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순교를 하면 사후에 Allah와 예언자 Muhammad를 만나거나 모실 수 있으며, 70명의 가족들의 죄를 면하게 해줄 수 있고,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제약도 사후세계에서는 없다고 믿는다. 게다가 현재보다 훨씬 예뻐지며, 영원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게 하는 것이다.

4) 사회적 오명이나 낙인(stigma)

사회적 오명이나 낙인(stigma)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기도 한다. 이혼하거나 간통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여성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그간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속죄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다. Shifa Adman Al-Qudsi라는 26세의 여성은 자살폭탄 테러 직전에 체포되었는데, 이 여성은 이혼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느끼게 되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결심하였다고 한다(Pedahzur, 2004). 또 다른 여성인 Ayat Al Arkras는 자신이 혼외정사를 했다는 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였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나 남성들 또한 이러한 동기로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기도 한다. 2002년 6월 16일 16세의 소년이 이스라엘 경찰에 접근해 자신의 몸에 설치된 폭탄을 터뜨려 자신과 이스라엘 경찰들을 살해하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소년은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자신과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자살폭탄 테러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였다는 것이다(Pedahzur, 2004).

결론적으로 자살폭탄 테러자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또는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자살폭탄을 실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보통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다만 일반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였거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틀릴 뿐이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는 것은 자살폭탄 테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조직 또는 사회적인 차원

지금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조직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동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리더의 역할

우선적으로 조직의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모택동이 자살폭탄 테러를 사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음의 중요성은 매우 다양하다. 인민을 위해 죽는 것은 태산보다 무겁지만, 압제자에게 충성하며 죽는 것은 새털보다 가볍다” 테러조직의 수장들은 자신들의 조직원에게 자살폭탄 테러가 매우 신성한 임무이고, 죽음보다도 가치 있다고 세뇌시킨다. Hassan(2001)은 자살폭탄 테러에 실패한 테러리스트들을 인터뷰 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리더로부터 자살폭탄 테러자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게 되며,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자살폭탄 테러 실패자는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임무이며, 이러한 희생은 천국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살펴보면 조직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조직원에게 자살폭탄 테러는 가장 숭고한 임무이며, 그들의 희생은 사후에 모두 보상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러한 교육으로 인하여 세뇌된 조직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는 것이다.

2) 자살폭탄 테러와 순교

자살폭탄 테러와 순교를 동일시 여기는 사회적 또는 조직적 분위기이다. Kruglanski와 그의 동료들(2009)은 약 300여 편의 자살폭탄 테러자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자살폭탄 테러자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였다.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충만하였으며, 일부 테러리스트들의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까지 표현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살폭탄 테러자들의 부모들을 면담하였는데, 이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자랑스럽다고 답하였다. 일부 테러 조직의 경우 자살폭탄 테러를 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까지 있다. 게다가 자살폭탄 테러자의 선정은 운명이며,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있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자살폭탄 테러를 거부할 경우 비겁자이고, 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오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사회가 자살폭탄 테러를 강요하는 것이며,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위해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는 것이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 전의 마지막 비디오에 보면 대부분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과 가족, 조직, 사회를 위하는 길이며 모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한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자살폭탄 테러의 정당화 교육

자살폭탄 테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 또한 자살폭탄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Hezbollah의 경우 100명중 1명꼴로 8세부터 16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급진 이슬람 주의를 주입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슬람 급진주의자로 자라게 되고, 자살폭탄 테러가 순교라는 공식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Post, 2005). 또한 이들은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파괴적 행위에 자신들이 일조하기를 희망한다(Sprinzak, 2001). 예를 들면 Ramsi Yousef는 1995년에 공공연하게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리고, 12척의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이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화학적 무기를 통해 대량살상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하였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급진화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알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큰 영광이며 명예라고 믿게 만들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되고, 오히려 자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나의 이념(ideology)으로 승화시켜 이를 미화하고 조직의 영광스러운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슬람과 관련이 있지만, 종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Kruglanski et al., 2009). 스리랑카의 테러조직인 LTTE가 대표적인 종족과 관련된 자살폭탄 테러조직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자살폭탄 테러가 주요 이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단 자살폭탄 테러가 조직의 이념으로 결정이 되면 자살폭탄 테러가 정당화되고, 여러 젊은이들이 지원하게 되며,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 조직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다.

3. 치명적 칵테일(fatal cocktail) 모델

Crenshaw(2007)는 자살폭탄 테러의 동기는 개인적이나 조직적 차원의 한 요소에 의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를 잃고, 현재의 상태에서 희망도 없으며, 주변에서 순교(자살폭탄 테러)를 권유할 경우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되는데, 자살폭탄 테러의 경우 이러한 가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원인 보다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보다 중요시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자살폭탄 테러자는 천국에서의 보상을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다른 테러자는 가족에 대한 복수가 자살폭탄 테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조직적, 사회적 분위기가 합하여져서 결국 자살폭탄 테러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Krugalanski와 그의 동료들(2009)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00여 편의 마지막 인사 비디오(farewell video)를 핵심단어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비디오 12편을 정리하였다. 표 1은 자살폭탄 테러자가 한 가지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살폭탄 테러를 결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마지막 비디오의 분석)

테러리스트	조 직	동 기	핵 심 단 어
Shehzad Tanwee	Al-Qaeda	종교, 민족주의, 복수	우리 민족에 대한 억압과 학살, 알라를 위한 순교, 희생된 어린이들을 위한 복수
Abu Muhammad Al-San"ani	Al-Qaeda	종교, 민족주의, 복수	미국인들에 대한 복수, 적군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 희생, 사후 천국에 대한 기대
Abu Mu"awiya Al-Shimali	Al-Qaeda	종교, 민족주의	낙원, 명예, 순교, 우리는 그동안 공격만 받았는데, 이제는 공격할 차례
Abu Dahham	Al-Qaeda	종교, 복수	알라를 위한 세계 건설, 민족을 위한 복수
Mohammed Sadiq	Al-Qaeda	종교, 인종주의, 가족의 상실	알라의 부름과 이에 대한 복종, 형제, 자매에 대한 복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열망
Hanadi Jaradat	Palestine Islamic Jihad(PIJ).	종교, 국가주의, 인종주의	내 나라를 위한 희생, 알라의 선택, 순교

unknown	Al-Qaeda	국가주의, 복수, 상대적 박탈감	서방사람들은 공격해야할 대상(불평등을 초래), 서방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영광,
Adham Ahmad Hujyla Abu Jandal	Hamas	국가주의, 복수	서방사람들은 중동에서 즉시 떠날 것, 이슬람 국가가 목표, 민족을 위한 복수
Mu"min Rajab Rajab Abu Hafs	Hamas	종교, 국가주의, 상대적 박탈감	알라의 이름으로 복수,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 심판의 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서방사람들을 제거
Bassem Al-Takrouri	Hamas	종교, 복수	신성한 의무의 이행, 순교,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 알라를 위한 복수
Mujahid Al-Jabari	Hamas	종교, 국가주의, 복수	신성국가의 건설, 코란의 보존, 순교, 희생된 동료에 대한 복수
Reem Riyashi	Hamas	종교, 복수	신성한 알라를 모독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사후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대
Al-Moayed Bihokmillah Al-Agha	Hamas	국가주의, 상대적 박탈감	우리는 서방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서방세계 파괴만이 진정한 평등세상을 구축하는 길

출처: Kruglanski, A.E., Chen, X., Dechesne, M., & Orehek, E.(2006). Fully Committed: Suicide Bombers' Motivation and the Quest for Personal Significance. *Political Psychology*, 30(3), 331-357.

Ⅳ. 자살폭탄 테러의 전략

자살폭탄은 매우 강력한 테러수단이다. 상대방에게는 다른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조직의 결속도 다질 수 있다. 대부분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비디오(fairwell video)를 제작하며, 자살폭탄 실행 후 이를 공개해서 자살폭탄 테러자를 영웅으로 만들며, 조직에서 제2, 제3의 자원자가 나오도록 유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동기에 의해 자살폭탄을 실행하겠다는 자원자가 있게 되며,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훈련을 시켜 이를 실행하게 한다. 자살폭탄 테러자는 자신의 몸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폭탄이 설치된 차량으로 목표물에 접근하여 폭발물을 터뜨린다. 하지만, 간혹 실행단계에서 망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리모콘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폭탄을 터뜨리기도 한다. 아울러, 자살폭탄 테러는 용의자가 검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테러조직에서는 부담이 없으며, 상대방은 수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테러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폭탄 테러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911테러의 경우 비행기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살폭탄 테러자들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순차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첫 번째 폭발로 경찰이나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게 되고,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하게 된다. 무고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과 다른 공무원들까지도 한꺼번에 살상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살폭탄 테러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나, 문제는 자살폭탄 테러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자원자가 많기는 하나, 최근 강화된 검문검색 등으로 인하여 여성, 특히 임산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지원자들이 적기 때문에 일부 테러조직의 경우 대상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그 치욕을 씻는다는 구실로 자살폭탄 테러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을 결심하게 되고, 테러조직은 이를 더욱 장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의 자살폭탄 테러자를 확보하려고 한다.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자살테러자의 동기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폭탄 테러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테러조직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살폭탄 테러를 더욱 많이 실행하려고 할 것이며, 다른 테러 수단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따라서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희생당한 가족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터키의 경우 PKK라는 테러조직이 있는데, 경찰관들이 테러조직원들의 가족을 밀착 감시하고, 가급적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의 치유가 매우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무학인 경우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산층이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런던테러의 경우도 영국에서 태어난 이슬람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알카에다의 세뇌교육이 합쳐져서 발생한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부모 중 1명 또는 모두 동남아나 다른 국적을 가진 코시안(Kosian)[4]이 영국의 이슬람계 청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테러조직과 결합될 경우 자살폭탄 테러를 실행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도 런던 테러를 계기로 이슬람계 청년들을 포용하는 정책들(교육혜택, 취업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코시안들이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특정 종교나 이념이 자살폭탄 테러를 순교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슬람교의 경우도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급진 이슬람교에서 자살폭탄 테러는 순교라는 공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소위 외톨이형 은둔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묻지마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이 테러조직과 결탁할 경우 자살폭탄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형사적인 측면에서만 묻지마 범죄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테러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이나 특정 종교집단이 자살폭탄 테러를 격려하거나 유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세뇌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포섭이나 세뇌가 일어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살폭탄 테러의 현황, 테러자의 동기, 전략,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살폭탄 테러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자살폭탄 테러는 중동이나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자살폭탄 테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한 건의 학위논문(석사 포함)이나 학술논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google scholar로 suicide bombing으로

4)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일컫는 말로, 1996년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코시안은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이다.

검색한 결과 2012년에만 약 3,000여건의 학술논문이 등재되어 있다.

자살폭탄 테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학계 및 관계기관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차분히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살폭탄 테러의 방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이슬람교나 소수인종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적 상황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자살폭탄 테러에 대비한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Berko, A., & Erez, A.(2006). Women in terror: Palestinian feminist revolution, or gender oppression. Tsohar le Batei Hasohar(A Window into the Penitentiaries), 10, 5-11.

Bloom, M.(2005). Dying to kill: The allure of suicide terror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renshaw, M.(2007). Explaining suicide terrorism: A review essay. Security Studies, 16(1), 133-162.

Hassan, N.(2001). An arsenal of believers: Talking to the "human bombs." The New Yorker. November 19, 2001.

Kruglanski, A.E., Chen, X., Dechesne, M., & Orehek, E.(2006). Fully Committed: Suicide Bombers' Motivation and the Quest for Personal Significance. Political Psychology, 30(3), 331-357.

Mikulincer, M., Florian, V., Birnbaum, G., & Malishkevich, S.(2002). The death-anxiety buffering function of close relationships: Exploring the effects of separation reminders on death-thought acces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287-299.

Pedahzur, A.(2005). Suicide terrorism. London: Polity Press.

Post, J. M., Sprinzak, E., & Denny, L. M.(2003). The terrorists in their own words: Interviews with 35 incarcerated Middle Eastern terrorist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5, 171-184.

Post, J. M.(2005). When hatred is bred in the bone: Psycho-cultural foundations of contemporary1 terrorism. Political Psychology, 26(4), 615-636.

Rapoport, D.(2004). Four Waves of Rebel Terror and September 11. In Audrey Cronin & James Ludes(Eds.). Attacking Terroris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Ricolfi, L.(2005). Palestinians, 1981-2003. In D. Gambetta(Ed.), Making sense of suicide missions(pp. 77-12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pekhard, A., & Akhmedova, K.(2005). Talking to terrorists. Journal of Psychohistory, 33, 125-156.

Walker,W. I., & Smith, H. J.(2001). *Relative deprivation:* Specification, development and integrat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Motivation of Suicide Bombers and Efficient Counter Terrorism

Kang, Wook
Chun, Yong-Tae

It is very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commit suicide bombing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off, suicide bombers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Moreover, suicide bombers should kill innocent people who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goals.

However, suicide bombing increase and 2,670 people were killed in 2011 due to suicide bombing. Ropoport indicated that suicide bombing is related to the fourth wave in modern terrorism.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ituation of suicide bombing and analyze suicide bombers' motivation with several cases.

The suicide bombers' motivations were explained by two categories, which ar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or social) aspects.

The individual aspect included the loss of family, trauma, and distorted recognition of society. The organizational(or social) aspect consisted of religion, ideology, and strategy. It was found that these aspects influence suicide bombing.

There was no suicide bombing in Korea, but we need to prepare for suicide bombing because of high possibility.

Key words : Suiciding bombing terror, Fourth wave, Motivation, Suicide bombing strategy, Counter terrorism